

김혜정 교수, 직위해제 ... ‘횡령’ 등 4개 비리 의혹

〈헤정박물관장〉

〈감사행정원 감사 결과〉

헤정박물관 논란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이승연 기자 leesy0177@khu.ac.kr

지난 8월 20일 김혜정 석좌교수가 헤정박물관 관장 직에서 직위해제 됐다. 이는 1월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된 감사행정원(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결과 김 교수는 횡령을 비롯한 4가지 비리의혹을 받아 ‘징계’ 절차에 회부된 상태다.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대상자는 일시적으로 직위 해제된다.

김 교수가 받고 있는 첫 번째 의혹은 횡령이다. 헤정박물관은 작년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세계고지도로 본 동해’전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김 교수가 전시업체에게 환급받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총 976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혹은 기탁유물을 학교교비로 구입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헤정박물관의 유물을 기증된 유물 2,699건, 기탁유물 2,709건과 교비로 구입한 유물 193건까지 총 5601건으로 산출하고 있다. ‘기탁유물’은 김 관장의 ‘개인소유’이지만, 학교의 유물수장고에 보관해 박물관에 전시하는 등 다른 유물처럼 활용될 수 있다.

“비리의혹이 드러나 징계절차 진행, 징계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교수는 기탁유물 30개를 교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제캠퍼스 감사원 조성인 계장은 “기탁유물은 대학의 수장고에 있고 전시목적의 사용도 가능해 학교 측에서 구태여 살 필요가 없는 유물인데 김 관장이 학교 교비로 구매했다”며 “사립학교법 66조 4항에 따라 시효가 소멸한 건을 제외한 유물만 징계절차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학교 소유의 유물인 ‘기증유물’을 집으로 무단 반출하고 이를 잃어버린 점, 헤정박물관 직원 및 조교를 개인적인 일에 동원한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번 감사결과와 공개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조 계장은 “감사결과 비리의혹이 드러나 징계절차에 회부된 것이고,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자세한 이야기는 징계결과가 나와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언론보도에 나온 ‘보복성 징



사건 흐름

감사행정원 대학감사기간 감사실시 (1월 7일 ~ 4월 30일)

감사결과 조사보고서 작성 (6월 17일)

교무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7월 6일)

징계위원회 제청 (8월 13일)

징계위원회 징계요구 및 김혜정 교수 관장직 해제 (8월 20일)

징계위원회 심의, 징계당사자 소명 (9월 중 진행)

징계결정 (9월 중 진행)

계’라는 김 교수의 언급에 대해 조 계장은 “이번 감사는 대학 정기감사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것”이라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헤정박물관 감사결과 4월 30일 완료, 6월 17일 총장결재를 받아 7월 6일에 교무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8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

수는 법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 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처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이 같은 학교의 감사가 행정보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더불어 모든 운영이 정당한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어떤 횡령도 없었다”며 “구입유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구입한 것이며, 기증유물 무단 유출도, 박물관 직원을 개인행사 인력으로 쓴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헤정박물관 운영 서류검토 결과 법적으로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김 관장은 본인에 대한 징계요구사유서에 포함된 감사결과 내용 반박문과 직위해제와 징계절차 철회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서를 학교 측에 보낸 상황이다.

현재 헤정박물관은 정상 운영

수장고 유물은 봉인된 상태

학교 측과 김 관장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향후 헤정박물관 운영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헤정박물관은 2002년 당시 조정원 전 총장과 김 교수와 맺은 ‘자료 기증에 대한 예우’에 따라 2004년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현재 헤정박물관의 전시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논란 속 유물들이 보관된 수장고는 봉인된 상태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가집게 결과 발표, 우리학교 A등급 확정적

대학구조개혁 가집게 결과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우리학교는 지난 25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가집게 결과로 교육부로부터 ‘자율감축’을 통보받았다. 이는 ‘사실상’ A등급을 의미한다.

대학구조개혁은 올해 3월 1단계 자체평가보고서(정성평가용)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됐다. 각 대학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에 따라, 감축해야 될 정원의 비율 또한 달라진다. 특히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은 학교는 정원을 자율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B,C,D,E 등급)을 받게 되는 학교는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낮은 등급을 받을수록 감축해야 하는 정원의 비율이 늘어난다. 이번 가집게 결과 통보에서 등급을 명확하게 부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우지연 팀장은 “등급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정원감축에서 A등급에 해당되는 ‘자율감축’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사실상 A등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이 발표된 지난해 1월, 교육부는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교육부는 반대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대학의 정원감축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며 한 발짝 물러선 상황이다. 또 부실대학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도 지난 4월부터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개혁을 밀어붙일 ‘동력’ 자체는 상당히 약해진 상태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교육여건 지표가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우 팀장은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아 다행이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결과와 상관없이 1주기 실적을 2주기에 반영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일주일간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추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 안내

■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학원서 접수		2015.9.9.(수) 10:00~12(토) 17:00	인터넷접수 http://www.uwayapply.com/
서류제출		2015.9.9.(수) 10:00~16(수) 17:00	
1단계 합격자 발표		2015.10.20(화) 16:00 2015.11.18(수) 16:00	실기우수자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별 고사 일	면접고사	2015.11.28(토)~29(일)	학생부종합전형
	논술고사	2015.11.14(토)~15(일)	논술우수자전형
	시·소설	2015.10.24.(토)	실기우수자전형
	조리	2015.10.25.(일)	
	성악·피아노	1단계: 2015.9.19(토)~20(일) 2단계: 2015.10.24(토)~25(일)	
	한국화·회화·조소	2015.10.24.(토)~25(일)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	2015.9.19(토)	
	글로벌(영어)	2015.10.31(토)	
	디자인·도예	2015.10.24(토)	
	Post Modern 음악	2015.10.8(목)부터	
연기	1단계: 2015.10.8(목)부터 2단계: 2015.10.31(토)		
체육	2015.10.25(일)		
최종 합격자 발표		2015.11.18.(수) 16:00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 학교생활종합실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실기우수자전형
		2015.12.9.(수) 16:00	학생부종합전형(내오르네상스, 고른기회, 단원고특별), 논술우수자전형
등록(예치)금 납부		2015.12.11.(금)~14(일)	
전여등록금 납부		2016.1.29.(금)~2.2(화)	

■ 2016학년도 수시모집 특징

선발인원 : 서울캠퍼스는 1,434명, 국제캠퍼스 1,591명(전체 모집인원의 62.8%)

금년도 수시모집의 특징은 고교교장상하에 기여하고 다양한 역량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가운데서도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하고, 논술우수자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모집인원도 축소한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전년도 1,770명

(정원 내 1,651명)에서 2016학년도 1880명(정원 내1,745명)으로 전년 대비 5.9% 확대했다. 반면 논술우수자전형은 전년도 1,040명에서 2016학년도 925명을 선발해 전년 대비 11.1% 축소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중 내오르네상스전형 및 고른기회전형은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서류종합평가 성적 100%로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인성면접 성적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거른다. 지역균형전형 및 학교생활종합실자전형은 학생부교과 성적 70%와 서류 종합평가 성적 30%를 일괄합산하여 선발한다.

내오르네상스전형 및 고른기회전형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통 질문 및 개별 질문을 통한 10분 내외(의학계열은 20분 내외)의 인성 면접 평가가 진행된다. 면접을 통해 가치관과 인성, 전공 적합성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요소는 서류역량 재확인, 장학이념 적합도, 전공 기초 소양, 논리적 표현 능력이다.

논술우수자전형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소폭 완화하였다. 의예과, 한의예과(인문/자연), 치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탐구영역은 상위 1과목만 반영한다.

※입학처에서는 경희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수험생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오니, 입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입학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상담 : 서울캠퍼스 내오르네상스관 2층 입학처,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관 1층 입학처
• 전화상담 : 1544-2828

2015학년도 하반기(2학기) 고교연계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
경희 OPEN CAMPUS 전국캠프교실	[서울] • 이과대학 : 우수 고교생을 위한 디스플레이 캠프 • 의과대학 : 의과학 멘토링 캠프	추후 공지 예정
	[국제] • 공과대학 : 힘과 운동에너지의 세계 • 전자정보대학 : 전자공학의 세계로(Robot 프로그램) • 생명과학대학 : 생명과학으로의 여행 • 응용과학대학 : 물질의 구조와 성질 그리고 새로운 탄생	2016. 1 예정
일일대학생	• 재학생(멘토)과 고교생(멘티) 간 1:1 결연을 통한 대학생활 체험 기회 제공 • 대학 수업 청강, 캠퍼스 투어, 진학상담을 통해 진학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실질적 정보를 제공	• 서울 : 2015. 9 ~ 11 • 국제 : 2015. 7 ~ 9

지식창업교육과정 수강신청 안내

- 특허청이 지원하는 경희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2015.1)이 설립한 지식창업교육센터(2015.3)가 기존의 지식·창업교과목을 확대, 개편 운영하는 교육과정
-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를 통합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창출과 지식창업(진로를 탐색·설계)역량의 배양을 목적으로, 꿈과 희망을 찾는 학생의 비전을 위한 교육과정
- 전공지식을 도구적 수단으로 사회의 문제를 발견, 해결(발명·특허)하는 체험학습의 융합형 교육과정
- 산업계전문가와 교수가 함께 설계하고 강의, 실습, 지도와 상담을 하는 산업계 중심의 전문 교육과정
- 졸업증명서에 지식창업트레이수를 무기해주고, 관련 지식과 역량을 보장하는 교육과정(2016년부터 적용)

지식창업교육과정의 교과목과 이수체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교육과정체계	창의교육(6)	전공융합교육(9)	창업교육(12)		
학점이수체계	기초 : 3학점	필수 : 9학점	전공선택 : 12학점		
Creativity	과학, 예술, 문화와의 만남	아이디어에서 제품까지			
Innovation/Design	특허와 창의적 사고	특허와 지식재산권	창업과 도전		
Intellectual Property				특허정보 조사 및 분석	FRD와 특허전략
Entrepreneurship		지식재산창업	창업과 재무관리	비즈니스 모델	창업전략과 모의창업

문의처 : 지식창업교육센터(031-201-3569)